

「崔陟傳」의 필사본 비교와 작품의 분석 연구

이 필 준(서남대)

〈목 차〉

- | | |
|-------------------|----------------------|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 4. 「최척전」의 등장인물 비교 분석 |
| 2. 선행연구사 | 5. 「최척전」의 서사구조 분석 |
| 3. 서울대본과 고려대본의 비교 | 6. 결론 |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최척전」은 현곡 조위환이 남원 주포에 우거할 때 쓴 (1621년 광해13년) 조 선중기 한문소설이다.

남원은 천년고도로 춘향전, 흥부전, 만복사저포기, 흥도전, 최척전, 그리고 혼불의 배경무대이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의 격전 속에서 온 몸으로 향 전했던 충열의 고장이기도 하다.

「최척전」은 남원문화원에서 발행한 남원의 고전 문학으로 춘향전, 흥부전, 만복사저포기, 흥도전과 함께 소개되어 있으나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한 문본도 제시되지 않아 그 내용을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최척전」에 관한 많은 선행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초기 단계의 연구과정에서 필사본이 지닌 약점을 극복하려는 이본들의 비교연구가 있었고, 또한 작가중심의 시대적 배경이 작품에 미친 영향과 등장인물 중심의 분석이 이루어

어졌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한문 소설인 「최척전」은 한글로 번역이 되었다.

그 후 기본적 연구들의 초석이 놓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문본으로 이용한 서울대본(규장각본)은 행초서를 이용한 필사본으로 독음하기 어렵고 전반부 3면 4면(531자)이 탈락되었으며 후반부 27면 28면(452자)이 탈락되어 완전한 번역에 어려움을 초래하였다. 이 부족함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려대본을 이용했다. 고려대본은 해서체 필사본으로 읽기 쉽게 필사되었으나 통용되는 속자를 이용한 글자들이 있어 이 또한 읽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대본도 역시 전반부 7면(478자)이 탈락되었으며 후반부는 5개 부분 100여 자가 필사자의 주관에 따라 서울대본과 차이를 보이며 보관상의 문제로 인한 판독 불가의 글자, 17여자가 있고 의미상 잘못 쓴 40여자의 오자들이 있다. 그 결과 「최척전」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이야기 내용이 완전한 한문본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필사본을 비교 연구하여 보완된 한문본을 제시하고 그 바탕 위에 작품을 분석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선행연구사

2.1. 「최척전」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연번	연구자명	연도	연구내용
1	이명선	1948	최초의 연구자
2	김기동	1974	‘불교계 소설’로 분류
3	문선규	1976	최척의 고사를 기술한 것으로 소개
4	소재영	1977	피로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
5	김장동	1985	설화인 흥도의 이야기가 소설로 전이된 형태의 대표적인 역사소설로 분류
6	박일용	1990	현실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초기소설의 특징을 견지하면서 후대의 통속적인 일대기 소설로 이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조명
7	박희병	1990	실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소설 작자 조위한의 사실주의적 태도 조명

연번	연구자명	연도	연구내용
8	양승민	2000	작자 조위한의 경험적 사실과 세계관에 입각한 소설이라는 점을 고찰
9	민영대	1999	우리 소설의 발전 변모를 연구 『최척전』이 후대 소설에 미친 영향 탐구
		2008	소설속에 중국적 요소 분석
10	장경남	2002	입란 관련 실기와 소설과의 관련 양상 파악
11	장효현	2006	최척과 옥영의 간절한 사랑에 대한 내용에 초점 『조안벽전』과의 유사성 검토
12	한의승	2006	『최척전』에서 드러나는 17세기 소설의 특징 연구
13	김현양	2006	『최척전』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교적 요소’와 ‘인간에’의 의미 탐색
14	신태수	2007	『최척전』 내 공간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에 초점
15	권혁래	2009	동아시아 공간을 문화 지리학적 관점에서 분석
16	진재교	2010	『최척전』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 공간의 각국의 따뜻한 이웃의 시선과 인간애에 초점
17	김현화	2011	『최척전』의 노정 공간에 대해 연구 사실주의 소설 대표작품으로서 분석
18	김청아	2012	작자 조위한의 전란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최척전』에 나타나는 이합 양상 연구

2.2. 「최척전」에 대한 선행연구 자료 분석

1900년대에는 미미했던 「최척전」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 작품의 위상과 역사적 의미에 관한 논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문학·종교적인 의의를 찾는 등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명선(1948)¹⁾은 이 작품에 대해 최초의 언급을 한 인물이다. 작가와 작품에 대해 처음 언급을 하여 이후 「최척전」에 대한 연구가 이어질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 그 후 김기동(1974)은 작품을 세밀하게 분석, 고찰하면서 불교적인 요소를 가려 뽑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처의 가호가 작품을 지배하는 ‘불교계 소설’로 분류하였다.

이어 소설화 과정을 살피면서 작가 조위한이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실려

1) 이명선, 「조선문학사」, 조선문학사, 1948, 315면.

있는 흥도 이야기를 토대로 실화를 소설화한 작품이 「최척전」이라고 밝혀 본격적인 이 작품의 연구의 길을 열었다.

문선규(1976)²⁾는 「최척전」이 최척의 고사를 기술한 것이라고 간략하게 소개하였으나, 초기의 문학사에서는 단순하게 작자와 작품을 언급했을 뿐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듯하다.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한 피로문학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 소재영(1977)의 연구는 작품속의 공간의식과 임진왜란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도 고찰하였고, 피로문학이란 새로운 장르의 탄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김장동(1985)는 본 작품을 역사적인 배경의 소설화라고 보면서 설화인 흥도의 이야기가 소설로 전이된 형태의 대표적인 역사소설로 보았다. 이어 유몽인의 흥도 이야기와 자세히 대비하여, 실화를 중심으로 한 「흥도전」을 살펴본 후 작자 조위환이 소설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필연성을 곁들여, 본 작품을 완성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90년대 들어 박일용(1990)은 우리 소설사에서 초기에 나타난 작품으로서의 특징을 조명하였다. 이전 시대의 작품에서는 볼 수 있던 전기성을 완전히 탈피한 작품이고, 현실의 갈등을 사실적으로 그리는 초기소설의 특징을 견지하고 있으면서도 초기소설이 후대의 통속적인 일대기 소설로 이행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작품으로 고찰하였다.

박희병(1990)은 「최척전」이 실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소설이며 이 점에서 작자인 조위환의 저술태도가 사실주의적이라고 고찰하였다. 그는 특히 작품의 곳곳에서 작자의 리얼리스트로서의 면모를 볼 수 있다하여 본 작품이 초기소설의 리얼리즘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17세기 소설로 하여금 리얼리즘의 진경을 이룩하는데 선도적으로 기여한 작품으로 보았다³⁾.

전체적으로 민영대, 소재영, 정환국, 양승민 등의 연구에 의해 「최척전」이 사실에 바탕하여 교묘하게 허구화한 작품이라는 점이 밝혀졌다. 소재영⁴⁾은 「최척전」의 배경이 된 자료를 유몽인의 『어우야담』소재 「흥도전」, 노인의 「금계일기」 등의 작품을 들고, 「최척전」의 작품 구조 및 지리적 공간의 구성법이

2) 문선규, 「한국한문학사」, 정음사, 1976, 234면.

3) 민영대, 「최척전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0.

4) 소재영, 「임병양란의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276-280면.

이들 피로문학작품에서 비롯되었다고 하였으며, 민영대⁵⁾는 조위한 일가의 전란체험과 이로 인한 조위한 개인의 불행이 『최척전』 창작에 영향을 미쳤음을 논증하였다.

한편 양승민⁶⁾은 최척이 실존 인물이되 『최척전』이 최척 개인의 체험담이 아니며, 조위한 자신의 경험적 사실과 세계관에 입각해 치밀하게 창안된 소설임을 논증하였다.

『최척전』에 대해 가장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왔던 민영대(1999)⁷⁾는 우리 소설이 어떻게 발전, 변모되어 왔는가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최척전』보다 후대에 나타난 많은 소설들이 전 시대 작품의 영향을 입으며 발전해 왔는가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둔다. 『최척전』이 전 시대의 소설에서 어떤 점을 수용하였으며, 또 후대소설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연구한다.

2000년대 들면서 『최척전』과 관련된 연구들이 상당수 나오기 시작하였는데 연구의 분야와 내용의 다양성을 가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장경남(2002)⁸⁾은 임진왜란 이후에 전란을 체험한 작가들이 전쟁의 비극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고 본다. 그 동안 연구가 실기의 문학적 특성을 밝히는 점에만 주력하였다는 점을 비판하며 소설과의 관련성에 대한 만족할 만한 연구 성과는 없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최척전』을 연구함으로써 임란 관련 실기와 임란 배경소설과의 관련 양상을 파악하여 실기적 환경이 소설적 환경으로 전이되는 점에 주목한다.

장경남은 이 소설은 전대 소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 주목하며 17세기 이후의 소설에 나타난 주된 변모의 경향을 ‘현실성의 강화’와 그로 인한 ‘서사적 편폭의 확대’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탐색하였다.

임란 이전의 소설에서는 경험적 요소보다는 허구적 요소가 우세하여 전기적인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 그러나 임란 이후 『최척전』에 오면서 경험적 요소가 우세하여 사실적인 경향을 보이게 된다는 점에 주목한다. 역사 현실에의

5) 민영대, 『조위한과 최척전』, 아세아문화사, 1993, 292-308면, 『조위한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0, 148-174면, 316-364면.

6) 양승민, 『최척전의 창작동인과 소통과정』, 『고소설연구』 9집, 한국고소설학회, 2000, 69-77, 88-100면.

7) 민영대, 『최척전과 그 전후대에 나타난 소설과의 영향관계』, 『한국언어문학』 42권, 1999.

8) 장경남, 『임진왜란 실기의 소설적 수용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 131호, 2002.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실기가 만들어지고 이어 소설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효현(2006)⁹⁾은 “『최척전』의 창작기반”에서 『최척전』이 탄생되게 되었던 시간적·공간적 배경을 기반으로 하여 최척과 옥영의 간절한 사랑이 작가 조위한의 경험에 투여되어 문학적 상상력으로 창작되었다고 본다. 한편 『최척전』에서 옥영이 왜병에게 붙들려 일본으로 끌려가 배를 타고 장사를 다니다가 안남에서 최척과 만나고 중국으로 건너가 살게 되는 과정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 멀리 월남까지 갔다가 중국을 거쳐 귀국한 이야기를 담은 『조완벽전』과 유사하다고 본다.

한의승(2006)¹⁰⁾은 『최척전』에서 드러나는 17세기 전기소설의 특징에 대해 연구하였다. 『최척전』에서는 사건의 흐름에 충실하려는 독자들에게 ‘비현실적’ 요소로 도저히 헤쳐나 갈 방법이 없을 때 ‘우연적 요소’들을 등장시켜 주인공에 희망을 안겨준다. 이런 점에서 ‘흥미추구’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김현양(2006)¹¹⁾은 기존연구들이 ‘전란의 고통과 주체의 극복의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최척전』에서 드러나고 있는 ‘불교적 요소’와 ‘인간애’의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성에 대해 논한다. ‘불교적 요소’와 ‘인간애’는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주체의 의지’를 서사적으로 추동하는 핵심적 동력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곧 동아시아의 ‘연대’를 통한 전란의 극복으로 이어짐을 이야기 한다.

신태수(2007)¹²⁾는 『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이라는 논문에서 다른 소설과는 다르게 공간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에 대해 재조명한다. 최척 부부가 돌아다니는 공간은 조선, 일본, 안남, 중국, 호국으로 순차적으로 위력이 강해짐을 설명하며 5국의 공간이 관계망을 형성하며 최척 부부를 끝없이 밀어내 고자 한다. 신태수는 이에 대해 『최척전』에서 보여지는 원심적 공간 구성의

9) 장효현, 『崔陟傳의 창작 기반』, 『고전과 해석』 1권, 2006.

10) 한의승, 『17세기 전기소설의 낭만성과 현실성, 통속성에 대한 논의와 작품의 실제』, 『人文研究』 5권, 2006.

11) 김현양, 『최척전(崔陟傳)』, 『희망(希望)과 연대(連帶)의 서사 - 불교적 요소와 인간애의 의미층위에 대한 주제적 해석』, 『열상고전연구』, 24권, 2006.

12) 신태수, 『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 『韓民族語文學』 5권, 2007.

원리를 주의 깊게 연구하여 공간을 높이고 인물은 낮추는 특이한 구조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민영대(2008)¹³⁾는 작자 조위한이 살던 당대의 현실 문제를 소설화했던 사실성이 강한 한국적인 『최척전』에 얼마나 중국적 요소를 작품에 내포하고 있는지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어디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인지를 밝히고 있다. 민영대는 『최척전』에 중국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나 있지만 당시 보편적인 우리 민족의 삶을 보여준 한국적이면서도 독창적인 작품임에는 틀림없음을 확인한다.

권혁래(2009)¹⁴⁾는 동아시아 공간을 문화지리학적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일본, 중국, 베트남(안남), 해상 이동경로 등의 공간 배경을 실제 지역공간과 대조하여 살폈다. 또한 이를 소설교육에 활용하는 방식에 대해 고찰하여 이를 통해 창작수법의 미묘한 변화에 대해 연구하여 작자 조위한이 자신의 체험과 독서경험과 풍문을 바탕으로 아무도 가보지 못한 동아시아 지역을 형상화한다.

그 동안의 『최척전』역사적 배경이나 작품성 측면에서 그 가치가 높다는 점을 연구했던 기존의 연구와 달리 문학지리학적 측면의 접근으로 연구되었다는 점이 특이하였고, 이를 소설교육의 방향성으로 재조명하였다는 점은 높이 살만 하다.

진재교(2010)¹⁵⁾는 연구논문에서 동아시아 공간의 각국의 따뜻한 이웃의 시선과 인간애에 초점을 맞춘다. 전란으로 상흔을 가진 민에게 삶의 희망과 평화를 주는 작품으로 조명하고 동아시아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본다. 『최척전』속에서 이웃의 사유와 발견은 전근대 동아시아 공간 속의 인민들이 공생하고 공존한 경험의 서사라고 분석하고, 이것이 『최척전』이 서사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상을 지니는 이유라고 본다. 따라서 전근대 서사에서 ‘동아시아’를 이야기할 때, 『최척전』이 빠질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한다.

김현화(2011)¹⁶⁾는 『최척전』이 동시대의 작품들과 비교했을 때, 노정형 서

13) 민영대, 『최척전(崔陟傳)에 나타나는 중국적 요소와 작자의 의도』, 『한국언어문학』 66권, 2008.

14) 권혁래, 『최척전의 문학지리학적 해석과 소설교육』, 『새국어교육』 81권, 2009.

15) 진재교, 『越境과 敘事 - 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記憶 - 崔陟傳』, 『한국한문학연구』, 46권, 2010.

16) 김현화, 『최척전의 노정 공간 연구』, 『어문학회』, 70권, 2011.

사를 근간으로 하는 점을 들어 『최척전』의 노정 공간에 대해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이야기한다. 방향과 정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외연적 서사구조와 경험적 의지와 선택적 선택의 갈등이라는 내포적 서사 구조로 구분하여 노정형 서사구조에 대한 분석을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노정 공간의 독립적 무대화를 지향한다는 점과 공익적 방랑자 실현, 서사의 지성적 장편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노정공간의 문예미를 분석한다. 노정형 서사 안에서 구현하고 있는 점으로서 당대의 사실주의 소설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꼽고 있다.

“『최척전』에 나타난 이합의 다중구조 양상과 그 의미”에서 김청아¹⁷⁾(2012)는 작자 조위환이 전란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한 『최척전』에 나타나는 이합에 주목하였다. 조위환의 생애를 통해 그의 삶에 나타나는 사별과 별리를 살펴보고 작품의 다중구조를 통해 중첩된 이합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작품 속에서 드러나는 작자의 의식을 읽어내어 『최척전』에서 나타나는 이합의 문학사적 의미를 확인하였다.

3. 서울대본과 고려대본의 비교

3.1. 서울대 필사본을 잘못 읽어 나타난 오류

순	서울대본	고려대본
1	以貽老父焉	以老父憂
2	以金台鉉之事自警	以金台鉉之事自警
3	苦待其挾	苦待其報
4	千里浮萍	千里浮寄
5	母親爲我擇婿	母親爲兒擇婚(婿의오자)
6	母(母의오자)也天只	母(母의오자)也天只
7	卽令出從	卽令出送
8	習御舟楫	習於舟楫
9	名之曰‘沙干’	名之曰‘沙于’(干의오자)
10	與陟許以(心을 잘못 읽음)知己	與陟許以(心을 잘못 읽음)知己

17) 김청아, 『최척전에 나타난 이합(離合)의 다중구조 양상과 그 의미』, 『인문학연구』, 86권, 2012.

순	서울대본	고려대본
11	適患背疽	適患背疽(疽의오자)
12	閏二月日素翁題	閏二月日素翁趙緯韓
13	素翁趙緯韓号右号玄谷	

1) 최척이 어려서 놀기만 힘써 아버지를 걱정하게 한다는 의미로 많은 곳에서 憂로 읽었으나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늘 걱정거리여서 아버지의 속내를 무엇으로도 다 설명 할 수 없기에 焉 한 자로 깊은 뜻을 포함 시킬 수 있음.

2) 김태현의 고사를 알아 수 없어 주역의 火風鼎卦로 풀이하는 것은 잘 못임.

3) 최척이 아버지께 정상사의 증매를 요구하고 아버지가 돌아와 정상사의 승낙이 있었다고 말하자 그 결과를 기다린 다는 의미에서 報로 읽고 있으나 원본은 전혀 報가 아니고 挾자로 挾은 結果의 의미로 쓰였음.

4) 千里浮萍은 읽기 어려워 萍으로 보았으나 寄가 바른 독음 임.

5) 媿와 媿은 필사 자가 거의 같은 글씨체를 사용하여 의미에 맞게 바르게 읽어야 함.

6) 母(母의오자)也天只는 오직 하늘만 알 수 있다는 의미로 母로 읽어서는 안 됨.

7) 최척의 결혼을 반대했던 의병장 변사정이 최척의 병과 아버지의 편지를 보고 군에서 내보내 준 이야기로 透보다는 從이 맞음.

8) 習御舟楫에서 御는 배를 제어한다는 뜻이지 발음이 같은 於로 대체 할 수 없음.

9) 돈우 頓于가 옥영의 이름을 지을 때 자기 이름을 본 떠 사우沙于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 못 된 것으로 우리의 작명 관례상 향렬을 중시했으며 위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 사간沙干이 훨씬 타당한 이름이며 원본에서도 분명 이 于와 干을 가려서 필사했음.

10) 홀로 오직 여유문만 믿고 중국에 간 최척이 그가 죽자 천하를 주유하려 할 때 학천 송우가 허심탄회하게 같이 장사에 나설 것을 권유하는 장면인데 以자의 초서와 心의 초서가 거의 같아 많은 곳에서 以는로 읽는 오류를 범하

고 있음.

11) 황달을 의미한 疸과 등창의 疽는 너무 흡사하지만 의미상 등창을 나타낸 疽가 정확함.

12) 작가를 밝혀준 결정적 근거를 제시한 맨 끝부분 고려대본에서의 그의 孺를 확인 할 수 없으나 서울대 본에서는 右号 玄谷이라 제시하고 있음.

<이하 표를 읽는 기호>

1. - : 고려대본에서 생략한 글자.
2. + : 고려대본에서 첨가한 글자.
3. 오류표시 : (오류의 순서),
4. () : 고려대본에서 탈락 한 글자.

3.2. 서울대본과 고려대본에 나타난 오자

순	서울대본	고려대본
1	俄見上舍出來,	低(俄의오자1)見上舍出來,
2	陟惱燥數日,	陟惱燥(燥의오자2)數日
3	而囁嚅(囁의오자1)不發,	而囁嚅不發,
4	母親爲我擇婿,	母親爲兒擇婚(婿의오자3)
5	而機關甚重,	而機關心(甚오자4)重,
6	何以仗母子之身乎?	何以伏(仗의오자5)母子之身乎?
7	寧從顏氏之請家(嫁의오자2)	寧從顏氏之請嫁
8	府于前參奉邊士貞	府于前參奉邊士寅(貞의오자6)
9	母(母의오자3)也天只,	母(母의오자7)也天只,
10	道所以.	+且(具의오자8)道所以.
11	同衾而宿.	同衾而寢(宿의오자9)
12	不甚看護,	不敬(甚의오자10)看護,
13	習御舟揖.	習於(御의오자11)舟揖.
14	不得出入.	亦(不의오자12)得出入.
15	名之曰 '沙干',	名之曰'沙于'(干의오자13)
16	以爲自逸之計乎?"	以爲目(自의오자14)逸之計乎?"
17	不得出入.	亦(不의오자15)得出入.

순	서울대본	고려대본
18	與陟許以(心을 잘못 읽음)知己.	與陟許以(心을잘못읽음)知己.
19	販繪賣茶以娛餘年,	販贈(繪의오자16)賣茶以娛餘年,
20	時海天徐色,	時海天慘(徐의오자17)色,
21	蓬島烟霞路不迷.”	蓬頭(島의오자18)烟霞路不迷.”
22	悄恍如失,	倘(悄의오자19)恍如失,
23	以手擊楫,	以手擊揖(楫의오자20),
24	宛轉沙中,	完(宛의오자21)轉沙中,
25	陟與其妻歎曰:	陟與其妻難(歎의오자22)曰:
26	蕞爾小會,	叢(蕞의오자23)爾小會,
27	軍馬連營于中(牛의오자4)毛寨.	軍馬連營于牛尾(毛의오자24)寨.
28	無數(一의오자5)殺傷,	無一殺傷,
29	從事官李民寔	從事官李民寬(寔의오자25)
30	陟之言語硬澁,	陟之言語硬涉(澁의오자26),
31	同病相憐,	同病相隣(憐의오자27),
32	少無猜訝,	少無情(猜의오자28)訝.
33	袒而示背曰:	袒而視(示의오자29)背曰:
34	適患背疽,	適患背疽(疽의오자30),
35	腫勢轉劇,	腫(腫의오자31)勢轉劇,
36	腫勢轉劇,	腫(腫의오자32)勢轉劇,
37	鍼藥難求.	鍼藥難救(求의오자33).
38	且聞玉英之生存	且聞(聞의오자34)玉英-生存
39	萬歷(曆의오자6)二十五年,	萬曆二十五年,
40	水漿(漿의오자7)不入口.	水漿不入口.
41	豈虛應哉?	豈許(虛의오자35)應哉?
42	夢仙泣訴曰:	夢釋(仙의오자36)泣訴曰:
43	子雖愚駭,	子雖愚孩(駭의오자37),
44	必須堅緻,	必須堅치(緻의오자38),
45	攀抱風漚 漂轉至此.	攀抱飄(風의오자39)漚漂轉至此.
46	船人聞而憐之,	船人間(聞의오자40)而憐之,
47	此是汝父弊廬,	此是-父+母蔽(弊의오자42)廬,
48	父母(子의오자8)夫妻兄弟舅姑,	父子夫妻舅姑兄弟,

서울대본과 고려대본을 비교해 볼 때 고려대본에서 더 많은 오자들이 보였

고,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고려대본의 축약이 심하여 그 깊은 뜻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3.3. 서울대본에 之가 첨가된 경우

순	서울대본	고려대본
1	居于府西門外萬福寺之東	居于府+之西門外
2	不拘齷齪小節	不拘齷齪+之小節
3	乃書標有梅末章	乃書標有梅+之卒章
4	終非池中物.	終非池中+之物.
5	定約以九月望,	定約乃以九月+之望,
6	以陟有弓馬才,	以陟有弓馬+之才,
7	死而靡他,	+之死靡他,
8	因述其陷賊事甚悉,	因述其陷賊+之事甚悉,
9	見之相似者,	+之見+人之相似者,
10	其父死命,	其父死+之命,
11	陟遽執偉慶手 曰:	陟遽執偉慶+之手曰:
12	我聚以爲兒子婦,	我聚以爲兒子+之婦,
13	南原萬福寺	+而南原萬福寺+之
14	何益於死父乎?	何益於父+之死乎?
15	玉英見而喜曰:	玉英見+之喜曰:

서울대본과 고려대본을 비교해 볼 때 서울대본에 之를 첨가한 고려대본이 보다 읽기 편하고 뜻을 분명하게 해주었다.

3.4. 서울대본에 而가 첨가된 경우와 以와 而의 상호교환

순	서울대본	고려대본
1	以屈首受書	-屈首受書
2	一日上舍方食不出	一日上舍+以方食不出
3	取而視之	取以視之
4	卽悔之	卽+而悔之
5	非故負約.	非+無故負約+而已

순	서울대본	고려대본
6	主家亦驚動來救,	主家亦驚動而來救,
7	大聲呼之曰:	大聲+而呼之:
8	共牢而食,	共牢以食,
9	以爲船主而來	以爲船主以來
10	余公遂以止之 其冬.	余公遂+而止之其冬.
11	淚續續下,	淚續續+而下,
12	陟以辭語問之 曰:	陟以辭語+而問之曰:
13	今而目觀此事,	今以目觀此事,
14	卒然問	卒然+而問
15	南原萬福寺	+而南原萬福寺之

서울대본과 고려대본을 비교해 볼 때 서울대본에 而를 첨가한 부분과 커다란 의미 차가 없는 경우 상호 교환이 이루어졌다.

3.5. 고려대 본에서 첨삭된 글자

순	서울대본	고려대본
1	無以射獵爲事	--+汝欲以射獵爲事
2	乃書標有梅末章	乃書標有梅+之卒章
3	非故負約.	非+無故負約++而已
4	以勺水入口,	以勺水入口+中
5	而過關至姚興居焉.	+迫而過關至姚興居焉.
6	使玉英居家,	使玉英居--+戶內
7	不覺擲簾,	不覺擲簾++於地,
8	鶴川請於頓子,	鶴川請於頓子+曰,
9	係念老父稚子,	係念老父++傷心稚子,
10	將卒.	++多殺將卒.
11	曾因有文,	曾因+余有文,
12	插楚鄉乎	插楚+++搖林之鄉乎
13	以鍼術糊口,	++而自以鍼術糊口,
14	吾欲移來于此地.	吾欲移+居來萬隙地.
15	父親本自鮮人,	父親-自+朝鮮人,

순	서울대본	고려대본
16	頃因賈人聞之,	頃因++日本賈人聞之,
17	水路僅二千里,	水路--三千+餘里,
18	夫何爲哉?	夫+復何爲-?
19	不得投 願謂夢仙曰:	不得+自殺願謂夢仙曰:
20	此船曾前未觀之船,	此船曾所未觀之船+也,
21	至順天, 到泊下船,	+往至順天,--泊涉,
22	時庚申四月也.	+于時庚申四月也.
23	陟始知其妻與子,	陟始知-妻與子+也,
24	相扶入室,	-扶+將入室,
25	聞其女來,	+得聞其女之來,
26	各抱子女,	()+其子-,
27	觀者如堵,	++隣里觀者--,
28	莫不擊絕歎嗟,	--+皆擊絕歎다,
	1자 첨가	18
	2자 첨가	9
	3자 첨가	1

서울대본과 고려대본을 비교해 볼 때 고려대본에 더 많은 글자들이 첨가되어 있어 필사자가 의미를 더 확실히 표현하고자 한 노력이 보인다.

3.6. 서울대본에서 탈락 된(고려대본에서 보완) 3, 4면 - 531자

서울대본을 읽어 내리다 보면 갑자기 이야기가 단절된 느낌이 든다. 그 점을 고려대본과 비교해 보았더니 최척과 옥영이 주고받은 편지의 내용이 중심이었다. 두 사람의 편지는 작품상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편지 내용과 함께 탈락된 3, 4면 - 531자를 아래와 같이 보완 했을 때 작품내용이 보다 확실해진다. ()로 표시한 부분이 두 사람의 주고받은 편지 내용이다.

轉來于此. 此家主人, 與兒主母家族, 待之甚厚, 將欲娘子求婚, 而未得其佳婿耳. 陟曰: “爾娘子, 以寡婦之女, 何以能解文字也? 豈因天得而然耶? 曰: “娘子有

兄, 曰得英氏, 甚有文章, 年十九, 未娶而夭, 娘子嘗掇拾於口耳. 故尙粗記姓名耳. 陟饋酒食慰喻, 因以赫號報曰: (朝承玉音, 實獲我心, 卽逢青鳥, 勸喜難勝, 每憑鏡裡之影, 難喚畫中之眞, 非不知琴心可挑, 篋香可偷, 而實未卽蓬山幾重, 弱水幾里. 經營計較之際, 鹹已黃, 而項已枯矣. 不意今者, 陽臺之雨, 忽然入夢, 王母之書, 遽爾來報. 尙成秦晉之好, 以結月老之繩, 則庶遂三生之願, 不偷同穴之盟, 書不盡言, 言豈悉意?) 玉英得書喜甚. 翌日, 又以春生, 報書曰:

(妾生長輦轂之下, 粗識貞靜之行, 以不幸早失嚴父, 生丁亂離, 獨奉偏慈, 終鮮兄弟, 漂淪南土, 僑寄宗黨, 年垂及笄, 尙未移天, 常恐一朝兵戈搶攘, 盜賊橫行, 則難保珠玉之沈碎, 不無強暴之所污, 以此老母傷心, 以我爲念, 然而猶所患者, 絲蘿所托, 必在喬木, 百年苦樂, 實由他人, 苟非其人, 豈可仰望而終身? 近觀郎君, 辭氣雍容, 舉止閑雅, 誠信之色, 藹然於面目, 若求賢夫, 捨子伊誰? 與爲人妻, 寧爲夫子之妾, 而薄明崎嶇, 恐不得當也. 昨者投書, 非爲其誨淫之意也, 欲試郎君之俯仰也. 妾雖無狀, 初非依市之徒, 寧有鑽穴之逃? 必告父母, 終成委禽之禮, 則貞信自守, 敢懈舉案之敬? 投詩先瀆, 已犯自媒之醜行, 欲往復私書, 尤失幽閑之貞操, 今旣肝膽相照, 不須書札浪傳, 自此以後, 必以媒妁相通, 而母令妾重貽行路之譏, 千萬幸甚.) 陟得書喜悅, 請問其父曰: 聞有(위 탈락된 531자)

3.7. 서울대본에서 탈락 된(고려대본에서 보완)

27, 28면 - 452자

이 부분은 옥영이 중국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 후 일어나는 상황으로 흥도가 시어머니 옥영의 뜻을 따르려는 숙내와 마침내 좋은 날을 잡아 배를 띄우고 항해 도중 일어나는 위기상황을 그린 대목이다.

月, 慈父戰沒, 暴骨殊方, 魂纏野草, 舉顏宇宙, 何以爲人? 近則道路之言, 則戰敗之卒, 或有遺脫, 而留落於本國者, 多矣. 人子至情, 不能無微倖, 若以郎君之身, 得抵同土, 彷徨於沙虫之場, 小洩其終天之怨, 則朝以入夕以死, 實所甘心.

因嗚咽, 泣數行下, 夢仙知母妻之志, 不可撓奪, 結束治行, 以庚申二月朔發缸. 玉英謂夢仙曰: “朝鮮當在東南, 必待西北風, 汝堅坐執櫓, 聽吾指揮.” 遂懸羽於旗竿, 置指南石於前頭, 点檢舟中, 無一不具. 低而, 豚魚出戲, 旗羽指翼, 果然, 三人齊力舉帆, 疾馳橫截, 母分昏晝, 臂箭入浪, 飛雷讓路, 一瞬登萊, 半靑青齊, 蒼茫島嶼, 轉眄已失. 一日, 遇天朝邏缸, 來問曰: “何處缸, 向何方?” 玉英應聲曰

：“杭州人，將往山東賣茶耳。”即過去。又過一日，有倭缸來泊，玉英即變着日本服，而待之，倭人問：“從何來？”玉英作倭語曰：“以漁採入海，爲風所飄，盡棄舟楫，雇得杭州缸而來矣。”倭曰：“良苦！此路去日本差，枉向南方去！”是夕，南風甚惡，波濤接天，雲霧四塞，咫尺不辨，檣控帆裂，不知所屆。夢仙與紅桃，惶怖匍伏，困於水疾，玉英獨坐，祝天念佛而已。夜半，風浪少息，轉泊小島。脩葺缸且，留數日不發，望洋中，有缸，看看漸近，令夢仙，取缸中裝藏，橐于岩竇。抵而缸人，叫噪而下，語音衣服，俱非鮮倭，而畧與華人相似。手無兵器，惟以白梃歐打，索(위 탈락된 452자)

3.8. 고려대본에서 탈락 된(서울대본에서 보완)

7면 - 478자

고려대본에도 탈락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최척과 옥영이 결혼한 후 반복사 장육불의 도움으로 첫째 아들 몽석을 얻는 장면과 잠시나마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 지은 두 편의 시가 있는데 옥영이 읊은 시는 부부가 전란으로 헤어졌다 서로를 알아 낼 수 있는 단서가 되며, 인간사는 행과 불행이 교차하여 장차 어려움이 닥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장육불은 옥영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극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갖도록 하는 역할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所求如意，家業稍足，而常患繼嗣之尙遲，每以月朔，夫妻往禱於萬福寺。明年甲午元月，又往禱之，其夜，丈六金身，見於玉英之夢，曰：“我萬福寺之佛也，我嘉爾誠，賜以奇男子，生必有異相。”及期而果生男子，背上有赤痣如小兒掌，遂名曰：‘夢釋’。陟善吹簫，每月夕花朝 相對而吹，時當暮春清夜，將半微風乍動，素月揚輝，飛花撲衣，暗香侵鼻。開缸灑酒，引滿而飲，據案三弄，餘音嫋嫋。玉英沈吟良久曰：“妾素惡婦人之吟詩者，而到此情境，不能自已。”遂詠一絕曰：“王子吹簫月欲低，碧天如海露淒淒。會須共御青鸞去，蓬島煙霞路不迷。”陟初不知其藻詞之如此，聞詩大驚，一唱三歎，即以一絕和之，曰：“瑤臺繚緲曉雲紅，吹澈鸞簫曲未終。餘響滿空山月落，一庭花影動香風。”吟罷，玉英歎意未央，興盡悲來，涕泣悄然而謂曰：“人間多故，好事有魔，百年之內，離合難常，以此忽忽，不能無惑。”陟揮袖雪涕，慰解而言曰：“屈伸盈虛，天道之常理。吉凶悔吝，人事之當然。設或不幸，當付諸數，豈可居易？浪自爲悲。無憂而戚，古人所戒，‘言吉不言凶’，諺亦有

之。不須憂惱，以阻歡意。”自此情愛尤禿，夫婦自謂知音，未嘗一日相離也。

至丁酉八月，賊陷南原，人皆逃竄。陟之一家，避于智異山燕谷。陟令玉英着男服，雜錯於廣衆之中，人之見之者，皆不知其爲女子也。入山累日，糧盡將饑，陟與丁壯數三出山求食且覘賊勢。行到求禮，猝遇賊兵，潛身於巖藪而避之。(위 탈락된 478자)

서울대본과 고려대본을 비교 보완하면 완전한 한문본을 얻을 수 있고 서울대본을 더 가치 있는 한문본으로 바탕을 삼아 다음과 같이 작품을 비교해 보았다.

4. 「최척전」의 등장인물 비교 분석

4.1. 「최척전」의 등장인물

「최척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분석을 통해 그 이야기의 전체적 구성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고찰했다.

순	등장인물	작품에서의 역할
1	최척	남 주인공 자 : 백승 최숙의 子 정상사의 제자 이옥영의 夫 심씨 부인의 婿 몽석, 몽선의 父
2	최숙	최척의 父 이옥영의 孀父 정 상사의 친구
3	정 상사	최숙의 친구 최척의 스승
4	이옥영	여 주인공 이경신 심씨 부인의 女 이득영의 妹 최척의 婦 최숙의 子婦 몽석, 몽선의 母

순	등장인물	작품에서의 역할
5	춘생	이옥영의 몸종
6	이경신	심씨 부인의 夫 이득영, 이옥영의 父
7	심씨 부인	이경신의 婦 이득영, 이옥영의 母 최척의 丈母
8	이득영	이경신, 심씨 부인의 子 이옥영의 오라버니, 요절할
9	몽석	최척, 이옥영의 長男
10	여유문	오 총병 휘하의 친총 절강성 요흥 사람
11	혜정	연곡사 스님
12	돈우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 군선의 책임자
13	왕용	해섬도사, 축의 청성산에 은거
14	송우	호 학천
15	두홍	젊고 용감한 장사, 의로운 일에 발 벗고 나서는 사람
16	몽선	최척, 이옥영의 次男 홍도의 夫
17	홍도	진위경의 女 몽선의 婦 최척, 이옥영의 子婦
18	진위경	홍도의 父
19	노추	후금을 세운 여진의 '누르하치', 요양을 침범하여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많은 장수와 병사들을 죽임.
20	오세영	소주 출신 교 유격의 백총으로 여유문과 교유 최척을 서기로 삼아 휘하에 둠
21	유정	요양 전투의 명나라 주장 부차 전투에서 전사
22	강홍립	조선군의 원수
23	이민환	강홍립의 종사관

4.2. 「최척전」의 등장인물 고찰

1) 최척 : 남자 주인공으로

- 남원 만복사 동쪽 마을 거주.
- 어린 시절 배우지 못하고 예의범절도 몰라 아버지의 걱정거리라 했으나 용모가 뛰어나고 생각이 깊으며, 문장뿐 아니라 활쏘기와 말 타기를 잘함
- 재주가 있고 용맹함.
- 옥영과 9월 보름에 혼인하기로 하였으나, 의병장 변사정의 병사로 뽑혀 전쟁에 나감.→동짓달 초하루에 혼례를 치름.
- 매월 초하루에 부부가 만복사에 가서 기도함.
- 평소에 통소를 잘 봄.
- 부부간에 시(칠언절구)를 주고받음.
- 전쟁 중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오 총병 휘하의 천총 여유문 아래에 있다가 중국 절강성 요흥으로 감.
- 송우와 함께 상선을 타고 안남까지 왕래하며 비단과 차를 거래하는 장사를 함.
- 안남의 포구에서 염불소리(옥영)→계면조의 가락으로 자신의 한을 담아 통소를 봄(최척)→칠언절구 읊는 소리(옥영)⇒아내 옥영과 극적으로 상봉함.
- 노추가 요양을 침범하여 교 유격 백총인 오세영 휘하의 서기로 요양 전투에 참전함→패전하여 포로가 됨→명군 대열에서 빠져나와 조선군 사이에 숨어들어→간수장의 도움으로 장남 몽석과 극적 상봉→수용소를 빠져나와 몽석과 함께 귀국길에 오름→중기가 악화되어 의원의 치료를 받고 의원과 함께 20여 년 만에 남원에 도착하여 父 최숙, 丈母 심씨 부인과 상봉함→명나라 의원 진위경이 홍도의 아버지임을 알게 되어 남원에서 같이 살게 됨.
- 부인 이옥영과 몽선, 홍도의 극적인 만남으로 이야기가 종결 됨.

2) 최숙

- 아들 최척을 바른 길로 인도했으며 이옥영과의 결혼을 성사 시켰으며

왜적에게 붙잡혀 가다 심씨 부인과 같이 탈출하여 연곡사에서 어린 손자 몽석을 찾아 남원으로 옴.

3) 정 상사

- 최적의 스승으로 학문에 정통하고 문장에 능함.

4) 이옥영 : 여자 주인공으로서 주체성이 강하고 이야기의 중심체로

- 한양 청파리 거주-강화도-나주 회진-남원에 정착함.
- 오라버니 이득영에게 문장을 배움.
- 최적에게 시경 ‘標有梅’ 시구 보냄.
- 부부간에 시(칠언절구)를 주고받음.
- 왜장 돈우의 종이 됨→사간沙干으로 이름이 바뀜, 상선의 식당 책임자
- 안남의 포구에서의 엽불소리(옥영)→계면조의 가락의 통소소리(최척)
→칠언절구 읊음(옥영)⇒남편 최척과 극적으로 상봉함.
- 단정하고 진실한 사람
- 최적이 요양 전투에 참전한 후 소식이 없자, 항주에서 몽선, 홍도와 함께 눈물과 통곡으로 세월을 보내며 자결하려 하나, 꿈에 장육불이 나타나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계시함.
- 배를 구해 항주를 출발하여 몽선, 홍도와 함께 갖은 고난을 겪으며 귀국길에 오름→풍랑을 만나 무인도에 정박함→해랑적을 만나 배를 빼앗김→꿈에 또 장육불이 나타나 좋은 일이 있을 것임을 계시함→조선 수군통제사의 무관선을 만나 극적으로 구출되어 순천으로 귀국함→남원에 도착하여 남편 최척, 시아버지 최숙, 친정어머니 심씨 부인, 장남 몽석과 사돈 진위경 등 모든 가족을 상봉함.

5) 춘생

- 이옥영의 몸종으로 편지를 전달하여 두 사람의 연결 고리 역할과 왜군의 칼에 쓰러져 몽석의 생사 여부를 전달하지 못함.

6) 이경신

- 심씨 부인의 남편으로, 서울 청파리에 살다가 슬하에 이득영, 이옥영을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남.

7) 심씨 부인

- 왜적에게 붙잡혀 가다 최숙과 같이 탈출하여 연곡사에서 어린 몽석의

울음소리를 알아차려 이와 극적으로 상봉함.

8) 이득영

- 이옥영의 오라버니로 문장이 대단하였으나 열아홉에 요절함. 옥영은 오라버니에게 문장을 배움.

9) 몽석

- 남원에서 최척과 이옥영의 장남으로 출생
- 어머니 이옥영의 꿈에 장육불이 점지해 주었다 하여 몽석이라 함.
- 연곡사 혜정 스님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으며, 연곡사에서 조부 최숙, 외조모 심씨 부인과 극적으로 상봉함.
- 남원의 무학으로 요양 전투에 소집되어 강홍립 원수의 부대에 있다가 포로가 됨→간수장의 도움으로 아버지 최척과 극적 상봉→수용소를 빠져나와 아버지와 함께 귀국길에 오름→아버지의 중기가 악화되어 명나라 의원의 치료를 받고 의원과 함께 남원에 도착하여 조부 최숙, 외조모 심씨 부인과 상봉→명나라에 계신 어머니 이옥영을 그리워함.
- 어머니와 동생, 제수의 귀환으로 온 가족이 상봉함.

10) 여유문

- 오 총병 휘하의 천총으로 교 유격의 백총인 오세영과 교유
- 가족을 모두 잃었다는 최척의 말을 듣고, 그를 자기 진영으로 데리고 감→최척에게 전사자와 실종자를 관리하는 직책을 주어 함께 명나라로 돌아감→최척과 함께 고향인 요흥으로 들어감.

11) 혜정

- 연곡사 스님으로 길을 가다가 시체사이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듣고 어린 몽석을 구함.

12) 돈우

-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 군선의 책임자로, 살생을 좋아하지 않고 부처님의 자비를 믿는 사람임.
- 옥영을 믿고 자식처럼 여기고 함께 숙식하며 가까이 지냄.
- 옥영의 재주를 아껴 포로가 된 마음을 위로해 주었으며, 자결하려 하는 옥영을 항상 걱정함.
- 옥영을 사간(沙干)이라 이름 짓고 중국의 복건성과 절강성을 오가며

무역하는 상선의 식당 책임자 삼음.

- 옥영이 남편 최척을 만나 헤어질 때, 슬퍼하고 아쉬워 함.

13) 왕용

- 해섬도사, 청성산에 은거하며 불사약을 만들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재주를 터득했다는 말을 듣고 최척이 찾아가 배우고자 함.

14) 송우

- 항주의 용금문 밖 거주.
- 경전과 역사에 두루 통하여 학식이 풍부하며, 공명을 탐내지 않고 저술활동을 함.
- 남에게 베풀기 좋아하는 성격, 의로운 인물
- 최척과 함께 상선을 타고 안남까지 왕래하며 비단과 차를 거래하는 장사를 함.

15) 두홍

- 젊고 용감한 장사, 의로운 일에 발 벗고 나서는 사람
- 안남의 포구에서 최척이 칠언절구 읊는 소리를 듣고 아내가 지은 시며, 자신의 가족이 왜적에게 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자 알아보고 오겠 다며 호기롭게 나섬.

16) 몽선

- 항주에서 최척과 이옥영의 차남으로 출생
- 옥영의 꿈에 장육불이 점지해 줌.
- 배를 구해 항주를 출발하여 어머니, 아내 홍도와 함께 갖은 고난을 겪으며 귀국길에 오름→풍랑을 만나 무인도에 정박함→해랑적을 만나 배를 빼앗김→조선 수군통제사의 무관선을 만나 극적으로 구출되어 순천으로 귀국함→남원에 도착하여 아버지 최척, 할아버지 최숙, 외할머니 심씨 부인, 형 몽석과 장인 진위경 등 모든 가족과 상봉함.

17) 홍도

- 아이가 태어난 날 이웃에서 복숭아를 보내와 홍도라 함.
- 아버지 진위경이 유 충병을 따라 조선의 전란에 출병하였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어 이모부 덕에 의지하여 삶.
- 아버지가 돌아가신 나라에 찾아가 곡이라도 해드려 조선 사람 몽선과

혼인을 결심함.

- 배를 구해 항주를 출발하여 시어머니, 남편과 함께 갖은 고난을 겪으며 귀국길에 오름→풍랑을 만나 무인도에 정박함→해랑적을 만나 배를 빼앗김→조선 수군통제사의 무관선을 만나 적극적으로 구출되어 순천으로 귀국함→남원에 도착하여 시아버지, 시숙, 특히 돌아가신 줄 알았던 친정아버지인 진위경 등 모든 가족과 상봉함.

18) 진위경

- 항주의 용금문 거주
- 유 제독을 따라 조선의 전란에 출병하였다가 군령을 어겨 도망쳐 나와 조선에 머무름.
- 귀국길에 오른 최척의 종기가 악화되어 치료를 해주고 함께 남원에 도착함→최척과 사돈 간 입을 알게 되어 남원에서 같이 살게 됨→홍도가 시어머니와 남편과 함께 남원에 도착하여 20여 년 만에 딸과 상봉함.

19) 노추

- 후금을 세운 여진의 ‘누르하치’로, 요양을 침범하여 여러 성을 함락시키고 많은 장수와 병사들을 죽임.

20) 오세영

- 소주 출신
- 교 유격의 백총으로 여유문과 교유
- 최척의 재주와 용맹함을 듣고 서기로 삼아 요양 전투에 참전함.

21) 유정

- 요양 전투의 명나라 주장으로 크게 패함.
- 부차 전투에서 전사

22) 강홍립

- 조선군의 원수

23) 이민환

- 강홍립의 종사관

이상과 같이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독특한 성격과 꼭 필요한 역할로

작품 전체의 이야기를 이끌어 나간다.

5. 「최척전」의 서사구조 분석

「최척전」은 현곡 조위환이 스스로 밝혔듯이 남원 사람 최척의 기구한 인생 여정을 그린 실존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이다. 「최척전」에는 유난히 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다. 그 위기의 순간과 그것에 대처하는 방법을 위기의 구조와 우연의 구조로 고찰했다.

〈「최척전」의 서사구조〉

순	서사구조	서사구조의 사건발생 순서
1	위기의 구조	1) 옥영의 자살미수사건과 최척의 병고 2) 정유재란과 이별 3) 우연한 만남, 그리고 이별 4) 두 번째 이별 5) 마지막 위기
2	우연의 구조	1) 손자 몽석을 찾는 장면 2) 베트남의 항구에서 만나는 최척과 옥영 3)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어 만난 최척과 몽석 4) 사돈에게 목숨을 구한 최척 5) 조선의 무관선에 구조된 옥영 일행

5.1. 위기의 구조

1) 옥영의 자살미수사건과 최척의 병고

최척의 인물됨에 반한 옥영이 혼기에 찬 여인의 마음을 읊은 시경의 ‘표유매’ 말장을 보내 자신의 속내를 알리고 최척의 답신을 받아 혼사가 진행되지만 최척이 의병으로 뽑혀가게 되어 혼사는 파국으로 치닫고, 처음부터 딸을 부자 집에 시집보내고 싶어 했던 어머니가 남원의 부호 양씨 집에 시집갈 것을 강요한다. 이에 옥영은 목을 매고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아버지의 서신을 통하여 옥영의 절박한 사정을 알게 된 최척이 그리움, 안타까움, 걱정으로 병이 들어 위중한 처지에 놓이자 의병장 변사정이 집으로 돌려

보낸다. 두 사람은 혼인하여 만복사 장륙불에 빌어 큰 아들 몽석을 얻는다.

2) 정유재란과 이별

정유재란은 최척 가족에게 큰 위기를 몰고 온다. 난을 피하여 지리산으로 들어가지만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최척은 명나라 천총 여유문과 함께 중국으로, 남장을 했던 옥영은 왜군의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된다. 선장 돈우의 시종이 되어 절망에 빠진 옥영이 뱃전에 나가 몇 차례 자결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그러던 어느 날 꿈에 나타난 만복사 장륙불의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믿고 희망을 갖는다.

3) 우연한 만남, 그리고 이별

중국의 요흥에 살던 최척은 의형제까지 맺은 여유문이 자기 누이와 혼인해 달라고 청하지만 단호히 거절하는데, 여유문이 죽고 나자 중국의 명승지를 둘러보려다가 학천 송우를 만나 항주의 용금문 밖에서 살게 된다. 어느 날 장사를 함께 떠나자는 송우의 권유에 장사배를 탄다. 안남(현재의 베트남)의 항구에 정박해 있던 어느 날 밤, 최척은 그리움을 못 이겨 옥영과 행복했던 시절에 붙어 주었던 통소가락을 연주한다. 그러자 가까이에 정박해 있던 일본 배에서 낭랑한 목소리로 ‘내 님의 통소소리에 달도 내려와 함께 들으려하네’라는 시를 읊는 소리가 들려온다. 그 시는 옥영이 최척의 통소가락을 듣고 지어 읊었던 세상에서 최척과 옥영만이 알고 있는 시였다.

돈우의 호의로 최척과 옥영은 다시 만나게 되고 함께 항주로 돌아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둘째 아들 몽선을 얻는다.

4) 두 번째 이별

세월이 흘러 혼기에 찬 몽선을 이웃집의 흥도와 혼인을 시킨 어느 날, 북방의 노추(누루하치)라는 오랑캐가 전쟁을 일으키자 황제는 군사동원령을 내리고, 최척의 재주를 알고 있던 오세영이 자신의 서기가 되어 전장에 나갈 것을 권한다. 옥영이 단도를 목에 대며 만류하지만 최척은 어쩔 수 없이 전장에 참가하는데, 포로가 되어 갇힌 옥방에서 강홍립의 군병으로 전쟁에 나왔다가 역시 포로가 되어 갇힌 아들 몽석을 만나 함께 조선으로 돌아온다.

요동에서 명나라 군사가 몰살을 당했다는 소문을 들은 옥영이 자결을 시도하지만, 그때마다 만복사 장륙불이 꿈에 나타나 ‘죽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며 만류한다. 이에 옥영은 조선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준비를 한다.

5) 마지막 위기

조선으로 돌아오던 최척은 등창을 앓게 되고, 목숨이 경각에 달린 순간 정유 재란에 참가했다가 귀환하지 않은 명나라의 의원 진위경을 만나 목숨을 구한다. 진위경이 둘째 아들 몽선의 아내 홍도의 아버지인 것을 알고 괴이해 한다.

재물을 정리하여 장삿배와 고깃배로 위장한 옥영이 아들내외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오는 뱃길로 접어들지만, 도중에 해적선을 만나 배는 빼앗기고 외딴 무인도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모든 희망을 잃은 옥영이 다시 자결을 결심하지만, 몽선 내외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그날 밤 꿈에 나타나 ‘죽지 마라.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장륙불의 말을 듣고 희망을 갖는다.

그런 어느 날 조선 수군통제사의 상선인 무판선을 만나 구조되고 옥영과 아들 내외는 무사히 남원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재회한다. 옥영은 자신이 사지에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만복사 장륙불의 은덕이라 믿고 정성스레 음식을 장만하여 온 식구들과 함께 공양법회를 연다.

5.2. 우연의 구조

대부분 고대소설의 유형이 그러하듯 「최척전」에도 현대소설에서는 허용되지 않은 우연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한다. 치열한 갈등이나 치밀한 복선도 없이 인물과 인물이 만나고 사건이 물 흐르듯 해결된다.

1) 손자 몽석을 찾는 장면

가족들이 지리산에서 뿔뿔히 헤어진 어느 날, 최척의 아버지 최속과 옥영의 어머니 심씨 부인이 연곡사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귀에 익은 아이의 울음 소리를 듣고 바로 그 아이가 손자임을 알고 거둔다.

2) 베트남의 항구에서 만나는 최척과 옥영

중국과 일본에서 헤어져 살던 최척과 옥영이 제각기 장사배를 타고 항해하던 중 베트남의 같은 항구에 같은 날밤에 정박하고, 최척의 통소소리에 자신의 시로 화답한 옥영이 재회하여 한때나마 행복한 시절을 보낸다.

3) 전쟁터에서 포로가 되어 만난 최척과 큰 아들 몽석

명나라 교유격 백충 오세영의 서기로 전장에 참가한 최척과 조선의 강홍립 부대로 명나라에 파병을 나와 포로가 된 큰 아들 몽석이 감옥에서 만나 서로의 사정을 털어놓은 후에 부자지간임을 알게 된다.

4) 사돈에게 목숨을 구한 최척

조선으로 돌아오던 중 등창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최척이 둘째 며느리 홍도의 아버지인 진위경을 만나 치료를 받고 건강한 몸을 되찾는다.

5) 조선의 무관선에 구조된 옥영 일행

망망대해의 무인도에 갇힌 옥영 일행이 우연히 지나가던 조선의 수군 상선 무관선을 만나 구조되어 남원의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구조에서 위기의 구조는 이야기의 전개상 문제와 갈등 그리고 해결이라는 소설의 형식적 요소이지만, 우연의 구조는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구조로 고대 소설의 유형인 전기적 서술 방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6. 결론

서울대본을 모본으로 삼고 고려대본과 비교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다. 서울대본은 낙장된 부분만 보완하여 읽는다면 이야기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오자의 필사도 적은 편이다. 이에 비해 고려대본은 불필요한 한자가 첨가되고 필사의 오자들이 많아 번역과 연구를 위한 자료로는 서울대본의

가치가 더 크다고 본다. 한문을 사용했던 과거로부터 채 한 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한문도 외국어의 영역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시대적 변화를 통감한다. 그러나 우리의 오랜 전통의 가치가 고전 속에 녹아있어 옛 글을 읽는 재미는 무엇과도 비교 될 수 없다. 알고는 있어도 접하기 어려운 우리의 이야기를 널리 알리고 싶은 욕망에서 『최척전』을 붙잡아 필사본을 비교하고 작품을 분석하여 그 가치를 부여하고자 했다. 글은 곧 사람이고 그 시대를 반영하는 문화 예술의 꽃이라 볼 때 그 한자 한자의 의미부여는 천금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문본의 정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진적은 사라지고 필사본만이 전하고 있어 글을 읽어 내리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의미에 적합한 한문을 찾아 읽어야하고 글에 얽힌 고사도 이해해야만 한다. 『최척전』의 등장인물을 통하여 전쟁의 처절한 피해 상황을 인식했고 여자인 옥영의 모습에서 아무리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주체로서 상황을 꿰뚫어 이겨내는 교훈도 얻었다. 또한 『최척전』의 서사적 구조를 두 가지 구조로 비교해 볼 때 그 당시 고전소설의 약점인 전기적 문제해결의 방법이 극복되지 못했음도 알 수 있었다. 『최척전』의 가치를 규명하고자 노력했던 선행 연구자들의 가르침에 고개 숙여 감사하며 아직도 알 수 없는 작품속의 사실들을 밝히는데 열성을 다 해야겠다. 작품 속 금교는 과연 어디쯤 일까? 김태현에 얽힌 고사는 무엇일까? 서울대본과 고려대본의 낙장 원인은 무엇일까? 그 밖에도 이본들의 비교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자료

- 『남원의 고전문학』, 남원문화원, 1996.
「崔陟傳」(漢文 筆寫本, 高麗大學校 圖書館 所藏)
「崔陟傳」(漢文 筆寫本, 서울大學校 圖書館 所藏)

2. 논저

- 간호윤, 『先賢遺音』, 이회문화사, 2003.
권혁래, 「최척전의 문학지리학적 해석과 소설교육」, 『새국어교육』81권, 2009.
김기동편저, 『필사본 고전소설전집 권3』, 아세아문화사, 1980.
김청아, 「최척전에 나타난 이합(離合)의 다중구조 양상과 그 의미」, 『인문학 연구』, 86권, 2012.
김현양, 「최척전(崔陟傳), ‘희망(希望)’과 ‘연대(連帶)’의 서사 - ‘불교적 요소’와 ‘인간애’의 의미층위에 대한 주제적 해석-」, 『열상고전연구』, 24권, 2006.
김현화, 「최척전의 노정 공간 연구」, 『어문학회』, 70권, 2011.
문선규, 『한국한문학사』, 정음사, 1976.
민영대, 「최척전과 그 전후대에 나타난 소설과의 영향관계」, 『한국언어문학』 42권, 1999.
一. 『崔陟傳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0.
一. 『조위한과 최척전』, 아세아문화사, 1993.
一. 『조위한의 삶과 문학』, 국학자료원, 2000.
一. 「최척전(崔陟傳)에 나타나는 중국적 요소와 작자의 의도」, 『한국언어문학』 66권, 2008.
소재영, 『임병양란의 문학의식』, 한국연구원, 1980.
신태수, 「최척전에 나타난 공간의 형상」, 『韓民族語文學』 5권, 2007.
양승민, 「최척전의 창작동인과 소통과정」, 『고소설연구』 9집, 한국고소설학회, 2000.

- 이명선, 『조선문학사』, 조선문학사, 1948.
- 이상구, 『17세기 애정전기소설』, 도서출판 월인, 1999.
- 장경남, 『임진왜란 실기의 소설적 수용 양상 연구』, 『국어국문학』 131호, 2002.
- 장효현, 『崔陟傳의 창작 기반』, 『고전과 해석』 1권, 2006.
- 진재교, 『越境과 敘事 - 동아시아의 서사 체험과 ‘이웃’의 記憶 - 崔陟傳 독법의 한 사례-』, 『한국한문학연구』, 46권, 2010.
- 한의승, 『17세기 전기소설의 낭만성과 현실성, 통속성에 대한 논의와 작품의 실제』, 『人文研究』 5권, 2006.

【국문초록】

옛 것을 밝혀 오늘날 잃어져 가는 우리 고유의 가치위에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물질적 풍요 속에 정신적 가벼움으로 인한 많은 문제에 부딪칠 때마다 꺾끗이 올 곧은 자기 것을 지켜내려는 선비 정신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삶의 지표가 될 것이다.

『최척전』은 약 400년 전 현곡 조위한이 쓴 한문소설이다.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에 그동안 필사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어 왔다. 그 중 서울대본(규장각본)과 고려대본이 널리 이용되어 왔는데 서울대본은 행초서체로 필사되어 초보자가 읽기에는 난해한 글자들이 있고 4면이 낙장 되었으며, 고려대본은 해서체로 필사 되어 읽기는 쉬운 편이나 그 또한 1면의 낙장과 후반부의 생략으로 완전한 의미를 전달 할 수 없다. 그 결과 글을 제대로 해석하여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두 본을 결합하여 상호 보완하는 작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이 이어져 왔으나 지금도 여전히 필사본을 잘못 읽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극복하고자 두 본을 비교하여 올바른 한문본을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두 필사본을 비교하여 한문본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인물 중심과 구조 중심으로 분석했다.

『최척전』은 임진, 정유재란을 겪은 최척의 실질적 이야기로 그 가치가 지대하다. 많은 연구자들이 밝혔듯이 전쟁에 바탕을 둔 피로문학 계열로, 최척과 옥영의 끈끈한 부부애를 흠모한 애정 전기소설로, 만복사 장육불의 음덕을 기리는 불교계 소설로 여러 분야에서 논의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몽선 부부는 국경을 넘어 다문화 가정을 이루는 모델이 될 수도 있어 그 생명력이 오늘날 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주제어: 『최척전』, 서울대본(규장각본)의 행초서체, 고려대본의 해서체, 두 대본의 상호 보완, 작품분석.

【Abstracts】

A Study on the comparison of the Chronicles of Choi, Chuck and narrative structure

Lee, Phil-joon

Reviewing the old and learning the new. It is valuable to renew the culture by reviving the old lessons on basis of traditional values fading out recently. Every time encountering problems due to the lack of mental prudence surrounded by material abundance, what does matter to those who live today is the spirit of 'Sunbi,' referring to the Korean classical scholar, that takes a firm stand to keep what he believes right.

The Chronicles of Choi, Chuck is a novel written in Chinese by Cho, We-han, pen-named Hyun-gok, about four hundred years ago. It has been studied by analyzing copies transcribed by hand since the original script has not been found yet. Of copies, the Seoul University versions and Korea University versions have been widely used. While the Seoul University version written in semi-cursive and cursive style contains many characters hard for the novice to read and, critically, four pages miss, the Korea University version written in semi-cursive style is easy to read. However, the latter also misses the first page and abbreviates the last part so that it is impossible to comprehend the whole story.

As a result, it has long been desired to combine and study both versions togeth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whole meaning. In spite of huge efforts

from many scholars, the fact that it is unable to read the original script has continued. In that context, this study puts the whole efforts in presenting the 'original script' through the comparison of both versions.

Since The Chronicles of Choi, Chuck, read his own stories experienced in period of both wars which happened in 1592 and 1597, it is a valuable work of art from the many perspectives. As many previous scholars have pointed out, it is a story in the line of fatigue literature based on the real war. The novel does not contain only a ardent love story between Choi, Chuck, the protagonist, and Ock-young, but a desperate human story to overcome the horrible reality of war times. As a salvation method of the couple, the author adopted a trick widely used in Buddhism literature which especially depends on the mercy of Manboksa Jangyookbool. It is also said that Mongsun's episode in which he went abroad and formed a multi-cultural family have an implication for the way to live a contemporary life.

There has been quite deal of studies to figure out the whole original story. The scholarly efforts have resulted in a variety of versions such as translated versions in Korean, Ganhoyoon version by Yoo, Eum-sok, and Chuly University version. As such, it is right to perform various comparative studies among many versions.

There are still lots of uncertainties in the novel. Where is Keumgyo? What happened to Kim, Tae-hyun? it is certainly an error to refer to the trigram of fire-wind-pod from the Book of Changes due to the ignorance of identifying old saying.

It is also expected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novel and the Keumohshinwha by Kim, Si-seup, the first novel written in Chinese and the effects of Choi, Chuck story on the novels published after 17 century.

Key words : Chronicles of Choi, Chuck , Reviewing the old and learning the new, traditional values, the spirit of 'Sunbi, Kyujanggak version, Korea

University versions, presenting the 'original script', comparison of both version

이 논문은 2012년 6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2년 7월 30일에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